



봉우 컬럼

소통해야 한다

‘멀리 있는 에어컨보다 손에 든 부채가 낫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잠언 27장 10절,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웃 사촌이라 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누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살인까지 하는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 주차 공간 때문에 칼부림을 하는 이웃도 있다. 벽 하나 사이에 사는 이웃의 노인이 죽어 며칠이 되어도 아무도 모른다.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소통(疏通),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여 공감대를 얻어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가족 간의 소통이 있어야 가정의 화평하고, 노사 간의 소통이 있으면 머리에 띠 두르고 투쟁하지 않는다.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성도가 소통하면 불쌍사나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몸도 소통이 원활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혈액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고, 변비에도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반려동물에 마음을 주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 참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과 소통은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마귀가 죄라는 담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담을 헐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고 소통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신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소원하는 것과 가슴에 담은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소원하는 것에 응답하시리라.

서울 근교인 남양주 퇴계원에 퇴계원에 예수중심교회가 섰다. 지난 11일, 퇴계원 예수중심교회에서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욥기서 8장 5~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성공한다’고 권면하셨다.

“왜 잘 나가던 음식점이 망하는 줄 압니까? 왜 부흥하던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압니까? 작금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첫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가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듯, 목사도, 장사꾼이나 기업가도, 통치권자도 변질되

올챙이 시절을 거치지 않은 개구리는 없습니다. 대단한 위인들도 어린 시절을 다 거칩니다. 이 퇴계원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창대하게 될 수 있는 법을 오늘 가르치려고 내가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욥8:5)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1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예수중심교단을 만든 원동력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나는 6개월 이상을 단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다 쓰러져 단에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

미지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이미지를 잘 심어야 합니다. ‘First impression is very important!’ 안내위원들의 옷매무새나 표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은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와도, 못 배운 자가 와도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1명 앞에서 100명 앞에서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변질의 원인입니다.

이 퇴계원이라는 평야에서 사는 길은 깊게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뭄이 와도 생수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갈수록



퇴계원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2017. 5. 11)

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은 하루 아침에 받는 게 아니지요. 세계적인 명품들을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천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명품이 되어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 명품이 되어야 고객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들이 명품이 되어야 성도들이 따르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구여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욥8:6)입니다. 금그릇이더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소문에 소문이 나서 교회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인격, 성품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 즉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한 목사님께 물어야 해매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100층에서 보는 것과 10층에서 보는 것은 천차만이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첫 이미지를 심는 데는 몇 초면 되지만, 그 이

교회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게 판 우물은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심비에 새겨 변질되지 않는 퇴계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질 것입니다.”

퇴계원예수중심교회의 담임인 박정임 전도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여 명품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자는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퇴계원 땅에 생수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퇴계원예수중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기자 신효수

jesus7857@gmail.com



벨라루스 집회

6월 5(월) ~ 15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4:17~25)

내 믿음이 전염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목회 32년 동안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괴롭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도 제가 한 말은 이 겁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지 압니까?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요1:12~13),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요15:14~15). 이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감히 귀신 따위가 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세상에 저를 대적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며(눅18:27),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롬4:17). 한 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창28:3). 그래서 그 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롬11:33). 어디 그 뿐입니까?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며(사40:12), 만세의 왕이십니다(딤후1:17). 그 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제가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고 말한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기에 그랬습니다. 만든 자가 고치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지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아픈 걸 두고 뵙니까? 더욱이 고칠 능력이 있는 아버지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 분은 저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귀하다귀하고 높다높은 여러분을 귀신 따위가 가지고 놀게 가만 놔둬니까? 이걸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녀인데 왜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믿음이 전염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게 배울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일의 범위를 축소해버립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하고 여러분 스스로 못

박아버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드는 것으로, 죄 중의 죄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송장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울부짖자 사막에 생수를 터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시고(왕하20), 홍해를 순간 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시136:13).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올림픽공원에서 태양이 작열할 때 ‘구름아, 태양을 가려라’고 명령했던 것도,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KGB에 끌려갔을 때, 매스컴과 언론

론의 가져다 없는 공격에도 당당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기에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4명이나 살리며,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며, 에이즈 환자도 손수건으로 닦아내어 살렸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덤석 물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계계를 씁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지요. 위로라는 탈을 쓰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가 아플 때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하는 말로 “병원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놔두면 큰 병 돼.”라든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니 어쩌니~” 라며 걱정하는 말로 귀신이 들어갈 틈을 만듭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혹은 위로해주니 감격해서 그 말을 인정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굴레를 씌워서 그대로 현실로 들어닥친다는 겁니다. 귀신은 살짝 주위 사람을 통

해 염려의 씨, 근심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달콤하고 위로가 되었으니 귀신의 행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라 염려라는 나무, 근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이란 놈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놈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그것에 동조만 해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부정의 말은 부정의 결과를 낳고, 불만불평은 더 큰 불만불평을 낳게 하니까요.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입입니다. 어느 성도가 상단을 하러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기를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그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아! 제가 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의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길 남편이 자꾸 자기를 때린다고 하길래 제가 위로하느라 ‘우리 남편도 그래.’ 라고 했는데, 그게 원인이라면 원인일까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다.” 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느라 한 말이지만, 그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느 날, 불평불만 많은 친구를 데리고 저의 절친한 친구 행운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행운이에게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를 소개하며, “여보게 행운이, 이 친구가 자네를 만날 수 없다며 욕을 하길래 데려왔네. 이 친구 좀 만나주게.” 했더니, 행운이가 하는 말이 “나는 믿음과 실력 있는 자만 만나준대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과 행운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그러니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열지도 맙시다. 그러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남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언론에서 세계경제가 안 좋다느니, 우리나라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느니, 헬조선이라느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해야 하고,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인이, 만인이 안 돼도 우리는 잘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 최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위기가 왔을 때 ‘아휴, 이걸 어쩌나.’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를 듣고 말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눈에 황달이 온 것이 아무래도 간이 나쁜 거 같아요. 병원 가 봐요.” 하는 가족에게 큰 소리로 말하세요. “걱정 마,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친구야.”
여러분, 현실에서 떨어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었습니까? 걱정근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동정소리, 위로 소리에 귀를 닫고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마음가짐을 점검해보자!

작년, 각 대학에서 수시모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한 학생의 표정이 몹시 어둡기만 했다. 몇몇 대학 호텔조리학과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시 1차에서 모두 미끄러지고 만 때문이었다.

“걱정하지 마렴! 네가 누구냐, 우리 교회 부주방장이잖니!”

우빈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참가한 수련회에서 총회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일류요리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리곤 수련회에서 돌아오자 곧 바로 학원에 등록하고 요리를 배우더니 하나하나 자격증을 따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교회 주방 봉사를 자청해왔다. 주방 일이란 게 사실 성인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겨울엔 손발이 시리고 여름엔 등줄기에 땀범벅이 되기 일쑤다. 가끔은 고되고 짜증날 만도 하련만 그는 내색하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요령도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감당해오고 있다. 필자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신원해주심을 믿고 기도하자!’며 그를 붙잡고 격려해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다. 수시 1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안겼던 학교들이 2차에서는 모두가 그를 합격자로 지명한 것이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몰랐다. 그랬더니 기막힌 고백이 터져

나왔다. 먼저 면접 볼 때와는 달리 2차 면접에서 단 한마디만 더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매주 교회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온 일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면접관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이다. 적잖게 떨렸으련만 그는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인정해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강조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더욱 발전해가고자 하는 향상심(向上心)을 소유한 자다. 상을 바라고 분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다. 반면 불신앙의 사람은 퇴굴심(退屈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과 핑계로 스스로의 성장을 제한하는 술한 어리석음을 범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웍은 ‘사람은 타고난 재능과 적성보다는 마음가짐(Mind-set)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생각대로 된다

여보게!

자네 부자 되고 싶은가? 당연히 되고 싶겠지. 어느 누가 부자 싫다 하겠는가? 이 세상은 부자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부자를 선호하고 부러워하지. 부자는 사회적 트렌드이고 대중적 코드야. 그렇다면 내가 부자를 만들어줍세. 잘 듣고 이렇게만 실천하게. 그러면 꼭 부자가 될 거야. 지금부터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할 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따라온다는 말은 들어봤지? 그것과 같은 맥락일세.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신이 부자가 아닐 때부터 되고 싶은 모델을 꿈꾸며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했다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어느 성도가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했네. 조기명퇴가 되니 자연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그런데 그 성도가 장가를 잘 갔더구먼. 아내가 아주 지혜로웠네. 그 아내 왈, “아니, 왜 그렇게 애가가 축 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장 만들려고 그러신 건데.” 그러면서 남편의 기를 살려준 거야. 그리고는 이제 사장이 되려면 걷는 것부터, 말투부터 사장처럼 해야 한다 하면서

남편을 의자에 다리 꼬고 앉으라고 해놓고는 “미스 김, 커피 한 잔 가져와.” 이렇게 말해보라고 시킨 거야. 걸음도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걸으라고 하고.

내게 상담을 하러 와서는 그 아내가 “목사님, 이 사람 걸음걸이랑, 말투, 제스처 좀 가르쳐주세요. 사장이 될 사람이니 그에 걸맞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미스 김, 커피 한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창피하다고 안 해요.” 했다네. 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네. “아내 말이 맞네. 사장이 되려면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히브리서 11:3)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제야 그도 환하게 웃더라고.

여보게!

자네도 부자가 되고 싶결랑 오늘부터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게. 부자라는 씨를 심으면 부자라는 열매를 걷는 건 당연한 이치야. 의식적인 반복이 무의식적인 습관을 낳는 거야. 오늘부터 이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분명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네의 운명을 바꾸고 말 걸세.

사랑은 얹으로부터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이 녀석은 9살 된 말티즈라는 개다. 첫 반려견 인지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뻐 보였다. 그러나 일하고 들어온 하루 만에 이 녀석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집안 가득히 강아지 오줌과 똥 냄새가 났다. 서둘러 치우고 환기를 했다. 원래 오줌을 가리는 녀석인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아지를 빨리 적응시키고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TV의 한 프로에서는 전문가가 나와 주인의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애완견의 행동을 파악하고 주인에게 교육방법을 알려준다. 주인 말도 듣지 않다가 전문가의 말을 잘 듣는 개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 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개에 대한 지식이였다. 개의 습성을 잘 파악하면 개를 길들이기는 참 쉽다.

강아지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한 덕분에 지금은 퇴근해도 집안이 엉망이겠거니 하는 걱정이 없다. 강아지와 잘 지내고 사랑하려면 강아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듯,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돌이켜보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어서 내 세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떠한가?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호4:6)는 성경 말씀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김성일
cre8tor@naver.com

격려의 말 한마디

얼마 전 공원에서 5km 달리기를 하는데 3km 즈음 숨이 몰아쳤다. 무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중, 이어폰에서 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금세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리듬이 다리에 날개를 달아주었는지 3km 지점에서 3km를 더 뛰었는데도 운동을 더 하고 싶을 정도였다. 음악 한 곡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끼니 피식 웃음이 났다. 그리고 문득 경쾌한 음악처럼 삶을 견인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답은 간단했다. 바로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말이 답이었다.

삶을 주로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한다. 돌아보면 나도 힘들었던 순간마다 건네준 격려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지금도 결승점을 향해 매일을 뛰고 있다. 격려의 말이 힘이 있는 까닭은 사람의 근저의 자존감을 북돋아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기에 고상하고 지성이 묻어있는 한마디의 질책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묻어난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

독이 “지성, 정신력이 훌륭하네. 지금의 정신력이라면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에 단신인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의 모멘텀(동기)을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링컨대통령은 비방과 헐박이 이어지던 정치적 어려움 속에,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의 한 사람이다.’ 라는 신문기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다고 한다.

한마디의 격려, 선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법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격려보다 질책을 먼저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격려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가 얻을 긍정적 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 다가올 미래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가 이를 최고의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한마디의 격려로 만들어 질것을 기대하며 말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김고은
khjc77@hanmail.net

동역자가 있습니까?

한 미국인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백인 아이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자신의 답안지를 가리려고 한 반면, 같은 반에 있던 인디언 아이들은 함께 둘러앉아는 이야기를 들었다. 백인 어린이들에게 시험은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지만, 인디언 어린이들에게 시험은 '함께 둘러앉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간혹 이 학교의 백인 아이들과 같은 오류를 겪곤 한다.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사명을 완수하라고 보내 주신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세배대의 두 아들들, 즉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러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12명의 제자들은 3년간 사역지를 함께 돌며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예수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왕권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요직을 달라 요청했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했다(마 20:20~28). 그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복음전파를 위한 공동체의식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숨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 동역자의 중요성과 그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도였다. 비록 자신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복음전파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 두 기고를 서슴없이 형제라고 칭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주었고(고후 1:1, 고후 8:23, 골 4:7), 심지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도 사랑 받는 형제라고 부르며 신분, 물질, 환경을 뛰어넘어 동역자들을 섬기고 세워주며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목숨까

지 바치길 원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딤후 4:19, 롬 16:3~5), 오랜 옥살이로 병든 바울을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돌보았던 의사 누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하다 죽을병에 걸렸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할 다른 동역자들을 염려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귀한 자들이었다. 바울에게 그들이 함께 있었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편안하게 전파할 수 있었고 지구를 돌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도 성경을 교훈 삼아 복음전파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신실한 동역자를 간구함과 동시에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 때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바로 서야겠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도 더욱 따뜻하고 기쁨이 풍성히 넘치게 될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유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으며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취했습니다. 7명의 전문의와 세 곳의 건강연구소의 보살핌을 받았고 두 군데의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그는 백 살까지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실수란 어느 날 길을 건널 때에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건강을 보살펴도 이와 같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구하여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50세의 나이에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리수 그늘 아래서 생로병

사에 대한 깨달음을 구하던 석가도 죽었으며,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는 말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식약동원(食藥同源), 생강(生薑)편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생강,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생강은 전분이 40% 이상 차지하고, 방향성분, 수지, 단백질, 섬유질, 펙토산, 무기질 등이 들어있으며,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관운동과 호흡중추를 활발하게 해준다. 신선한 뿌리는 생강(生薑)이라고 하고, 건조한 생강은 건강(乾薑)이라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생강은 비장, 위장, 폐장으로 가며, 따뜻하고 독이 없다. 생강은 땀을 배출시키어 감기나 한기가 느껴질 때 한기를 풀어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구토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물고기독이나 버섯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배가 아프고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또한 산모들이 산후에 생강을 적당히 먹게 되면 찬 기운을 몰아내고, 나쁜 피를 제거하면서 새 피가 돌게 되어 산후 조리에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차벌미, 배벌미에 생강을 먹으면

벌미가 줄어든다. 감기 예방에 생강 3g, 파뿌리 3뿌리, 대추 4개를 끓여서 복용하면 도움이 되며, 어깨가 아플 적에는 생강즙을 짜서 솜에 적서 발라주면 통증이 줄어들게 된다. 속이 차서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생강 5쪽, 황설탕 50g, 천초 3g을 끓여서 마시면 도움이 된다. 오랜 기침을 할 경우 생강즙 200g, 벌꿀 200g, 무즙, 배즙, 우유 각 200ml를 오래 끓여 고를 만들어 아침저녁 2숟가락씩 복용하면, 찬 기운을 몰아내고 가래를 삭혀주어 기침을 치료해준다.

건조한 생강인 건강은 생강보다 성질이 더 많이 따뜻해져 장을 따뜻하게 하므로 설사가 잦거나 변이 묽은 게 오래된 경우 활용된다. 여름철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를 자주한다면 생강차보다는 건강차를 마시면 차가운 장이 따뜻해져 설사가 멎게 된다.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배가 아프다는 경우, 건강차를 마시면 배가 따뜻해져 에어컨 바람을 견딜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에어컨과 찬 음료를 많

이 마셔 전체 체온이 떨어진 현대인들에게 생강은 체온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체온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생강의 항암 효능에 대한 보고들 중에서는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대장암과 폐암 세포를 억제하며, 디하이드로진저디온이 유방암 세포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혀져 있다. 단 주의해야할 체질은 생강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못 참는 사람, 눈병, 종기, 치질이 있는 사람, 간염 환자나 임산부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소양인 체질로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장기간 생강을 많이 먹으면 속 쓰림, 상열감, 피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 몸에 맞게 적절하게 생강을 활용한다면, 음식으로 때론 약으로 우리 몸에 큰 지원군이 될 것이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끝이 좋은 인생!

첫 인상은 좋았는데 뒤끝이 안 좋은 사람 있죠? 반면에 첫 인상은 별로였는데 지나면서 진국이라는 느낌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첫 인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끝 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은 욕구상태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말해줍니다. 첫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뒤끝이 안 좋으면 첫 인상이 원래 나빴던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점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것은 초기 기대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끝을 어떻게 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신 근성효과', 또는 '최신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표정, 말투, 배경 등 외양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끝 인상은 외양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 성격, 일의 결과에 의해 판가름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고,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서고 싶다면 첫 인상이 아니라 끝 인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년만 젊었더라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10년만 어리다면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10년 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다. 지나간 10년은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이니 접어두고 앞으로의 10년을 잘 설계해보세요. 10년 후, 5년 후 내 모습에 잘 살았다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앞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 언변술을 배우고 겉모습을 치장합니다만, 그러나 뒷모습은 꾸미고 치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은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이고, 지나간 시간의 흐름이므로 끝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진실 되게 살아야 합니다.

